

사설

종정스님의 사면유시

조계종 종정스님의 사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계기로 사면 문제가 좀 더 빠른 진전을 보일 듯 하다. 총무원장 스님도 누차 소신을 표명하였고, 교계 내외의 바람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선에 이르러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는 조속한 사면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원칙에 따라 사면을 실시하여, 한번의 졸속한 시행이 두고 두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사면 문제는 조계종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집적된 중대한 일이다.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조계종 미래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시가 있어 우선 모든 종단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하고, 또 이 미 목연의 합의가 이루어진 공감대는 종단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대화합이라는 원칙 아래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모든 분규의 와중에서 시행되었던 중징계에 대하여는, 그 당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감안하여 분규의 양상이 한걸음씩 물러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인 감정의 대립으로 아귀된 사태를 일단 평

어둔 다음 아무리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계종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해종행위를 선별하고, 그것을 주도한 대상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해종행위에 대한 명백한 단죄와, 그 해종행위를 주도한 대상자들의 공개적인 참회와 대내외에 참회하지 않는 한, 그런 행위를 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어서는 아니된다. 승단 내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화합을 이룩하여, 이젠 조계종 미래에 더욱 큰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면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지면서도 이런 원칙적인 문제의 선을 분명히 긋고,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나가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올바른 역사 청산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것 만이 대화합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화합의 전제 아래 대화합을 분명히 하고 사면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그에 따라 차분히 사면의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촉구한다.

황룡사 전시관의 조건

신라 최대의 국적이었던 황룡사지 인근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선다. 경주시가 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에 착공해 200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제 최대의 호국사찰이었던 익산의 미륵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사상과 예술, 사극의 불교관과 호국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찰인 황룡사는 삼국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점에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 규모 못지않게 큰 곳이다.

황룡사지가 발굴된 지 30여년을 바라보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할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곳에 유물관을 세운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한 지역이 당당한 일이다. 황룡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를 관계당국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관이 그 외형이나 시설에서부터 조경에 이르기까지도 흠잡을 데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부분 전시관들처럼 동선이 너무 길어 지치고 지겹기 짝이 없는 관람이 되게 않게 해야한다. 몇 번을 찾아도 새로운 느낌이 들

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의 취지를 먼저 배려하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둘째, 불교유물을 단순히 값나가는 옛날 물건을 전시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입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불교유물은 신령의 대상인 성보이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사상과 역사가 숨쉬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무형의 삶의 슬기와 의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의 원형찾기 노력이 전시관 건립을 계기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지 등 유적발굴에서 예산이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로 발굴조사가 점차 사들여지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보아왔다. 황룡사지는 조사발굴이 진행되면서 그 규모나 가람배치 등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미지의 사지다.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7백여년간의 사력을 지켜온 황룡사지만큼 그 매장유물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둔다.

독자의 소리

선무도 널리 알려졌으면

얼마전 KBS-TV에서 선무도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산사에 계신 스님들의 비밀'이란 내용의 흥미있고 독특한 소재였다.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무도를 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중국 소림사에서나 무술을 하는 스님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통불가의 선무도를 우리나라 스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선무도를 배우는 과정도 좋았다. 선무도가 일반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

김갑숙 <서울 용인구 한강로37>

달라이라마 입국 허용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현재 지니친 자본주의 사상으로 정신문화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세계적 정신지도자를 자기나라로 초대하여 강연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코자 하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초창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소리이다. 달라이라마의 작년 뉴욕 뉴욕 강연 때 엄청난 인파로 인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소식은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한국에 모신다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고개를 흔든다면 진정 우리 민족을 위한 정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IMF의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물질적인 공허를 정신적으로 채워나갈 좋은 기회를 정부에서는 자각하고 달라이라마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승백 <woolim95@hanmail.net>

시민연대 종교색 없어야

일부 종교화자들은 한국에서도 종교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요즘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시민연대 운동이 만일 특정종교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종교화합이라는 범국민적 민의를 저버린 망국적 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ನೀ에게도 여러 곳에서 종교와 관련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명단 선정에 있어 개인교의 자기목적 행위가, 대통령 부인의 개인종교활동을 위한 외국방문, 성공회 출신 종교인의 청와대 대거임명 등 종교적 편견이 치우친 모습이 여겨진다. 모두가 국민분열을 획책하고 종교간 화합을 해치는 요소들이다.

종교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목적 행위에만 급급해 민족의 장래는 이렇지않은 그러한 집단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풍토가 아쉬운 때이다.

박인택 <pit@hanmail.net>

가정마다 원불 모셨으면

언제부터인지 부처님을 집에 모시면 좋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고 있다. 이러한 말은 어느 경전을 살펴봐도 없는 근거없는 낭설이다. 이교도들이나 무당, 점집이 입에서 나온 유언비어가 분명하다.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불교를 믿는 불자의 집에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이다.

경전에도 "부처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나무로 조각을 하거나 흙, 철, 청동으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집에 모시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신심있는 진실한 불자집에 가 보면 불단을 설치하고 원불을 모셔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원불을 집에 모시는 것은 부처님을 아침저녁으로 보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수행하겠다는 원을 매일 다지는 일이다. 부처님을 집에 잘 모시면 분명히 좋은 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정봉순 <jh8888@chollian.net>

기독교방송 불교예곡 심각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보면 불교를 왜곡하는 종교 편향적인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1월28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들었던 기독교방송의 간중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도 분명히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택시기가사와 나와 간증을 하는 코너가 있었다.

그는 백수건달에다 노름꾼이었는데 어느날 좋은 사람을 알게돼 그 집의 승용차 기사로 일하게 됐다. 주인집에서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바른 삶을 살게 됐고 지금은 택시 기사를 하며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신앙간증 내용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마운 주인집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지옥에 빠지기 전에 구원에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초월하면서까지 유언비어를 배운 은인이 자기 종교와 다른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간담'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택시기사도 여차부니 없지만 간증자를 부추기는 진행자와 다른 종교를 비방 왜곡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낸 기독교방송의 행동은 더욱더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의 종교를 진정 사랑한다면 남의 종교를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겨 국민의 공익인 방송 매체에서 이제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종교편향적인 언동이 사라지길 바란다. 정복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현대불교'를 읽고

사이버포교 신중해야

사이버 불교세상을 주장하는 집중기획물이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첫째, 사이버 포교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 회사와 결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사달라거나 불자에게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접하면 사람을 덜 알게되어 보시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사이버 포교로 거의 모든 불자가 집에서 불교를 접하게 된다면 사찰에 갈 필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사찰은 보시방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포교를 주장하려면 우선 사이버 공간에 사찰별 보시방을 마련하는 장치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때문에 사찰이나 불자들이 나서서 사이버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승가에서 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포교를 주장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면 고맙겠다.

장인식 <hangsem@netian.com>

전세계에 열린 포교공간

'사이버포교를 주장하기에 앞서 보시금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의견은 어쩔 수 없다. 스님들이 신도 보시금에만 의지해 사는 세상은 지나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도 수익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찰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찰 자체의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버 포교는 사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불교를 접하게 된 이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료로만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자들도 집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료만 받지는 않는다. 한 두사람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문판을 설치하고 알찬 내용과 신선한 디자인으로 꾸민다면 전 세계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보고가 바로 인터넷이 가진 힘이다. 인터넷은 평면적인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법당을 만든다고 해서 사찰이 외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만이 지닌, 엄숙하면서도 고아한 멋을 인터넷으로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목탁소리

강지연 <취재1부 기자>

2월 초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이 파라미타 관련 기사를 쓴 주간불교 김수정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취재원이 기자에게 기사에 관해 항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국장은 기사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김 기자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 공인으로서의 자리를 망각한 행태인 것이다.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어린 것이", "이 XX야"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었다. 김 기자가 어찌하고 어러지 만만하게 보였던 것일까. 기자이기에 앞서 여자가라, 어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성별과 나

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나는 공적인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계에서는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문은 밝히지 않은채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붓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항의할 것이 있으면 담당

기자 취재원

에게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조목조목 틀린 부분을 지적한다면 기자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 기자에게 욕을 퍼부어 놓고 이 국장이 취한 행동은 더 가관이었다. 팩스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진솔하게 반성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 국장은 다급하게 그 자리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불교기자협회가 이 일을 기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자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도 헌신처럼 버렸다. 파라미타 사무국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이 국장의 행동은 결국 파라미타 회장인 지홍스님에게까지 누를 끼친 셈이 되었다. 회장님이 직접 주간불교에 찾아가 공식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 국장의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파라미타 책임자인 지홍스님의 사과방향을 계기로 이번 일이 일단 수습됐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여차부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비정규과정)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요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3월 6일(총 15주)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주 · 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본납가능)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입학식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개설강좌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선학의 이해 / 참선실수 / 중국선사상사
	2	인도선정사상사 / 선전개설 / 육조단경
2	1	한국선사상사 / 선어록 강독 / 선과 서양철학
	2	경허, 만공선사상 / 선과 현대사회 / 선과 노장사상

* 졸업 후 전문 참가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원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02) 541-0002-3 / 팩스: 02) 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l.net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용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가 엄마의 태중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있어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33세대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한 번의 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매달되는 증상에 (○) 마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끈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 10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